

##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열한 사도와 밋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개역, 누가복음 24:13~35]

# 책

을 내면서 흔히 하는 말이, ‘책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스러운데 또 한 권을 보았으니 독자들에게 어느 것을 읽어야 할지 머리만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어제 임직식을 치루고 드디어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한편으로는 ‘많고 많은 게 목사인데 다 읽은 목사를 한 사람 더 보텐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대원 면접 때도 그랬고, 강도사 면접 때도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고 물었습니다. 대충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죽으려고 오신 예수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을 의식한 생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미리 수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으니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부활을 믿고 갔던가요? 아닙니다. 단지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작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 눈이 가리운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서도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못 알아보다니...

16절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와서 동행을 해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가리웠으니 보아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들 무엇 합니까? 못 알아보는데...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예고를 했고, 심지어 살아났더라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눈이 가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술래의 눈을 가리고, 술래는 박수 소리만 듣고 다른 아이를 잡는 놀이와 비슷합니다. 훌쩍 뛰면 잡을텐데 살짝 살짝 손을 뺐으면 만날 술래밖에 못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힐 각오를 하고라도 뛰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각종 훈련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계시면 만날 술래나 하는 거지요.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도전은? 바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 슬픈 자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픈 겁니다(17절). 최고의 기쁨을 옆에 두고도, 놀라 기절할 만한 기쁨이 옆에 있는데도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닐까요? 마치 하갈이 사막을 방황하면서 샘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죽는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발견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창 21:19). 우리 인생의 슬픔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밖에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눈이 가려져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이유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오년째 참석하고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공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줄 몰랐다." "신명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 이런 탄성을 지르는데 그런 성경책을 옆에 끼고 뭐 하세요? 슬퍼요?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게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야단맞기 전에, 성경을 펴세요,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 간 큰 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면 간이 커집니다. 18절 보세요. 되레 예수님을 보고 딱하다는 뜻이 '그것도 모르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을 혼자서 모른단 말입니까?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가로되 나 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도대체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아님니까? 눈이 작으면 간이 크답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도대체 뭘 보는 겁니까? 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눈을 뺐히 뜨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그 유명한 사건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열심히 나사렛 예수의 일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글로바에게 우리 같으면 "니 지금 누구 보고 그 따위 소리하고 있는지 아나?" "에라, 이 놈아!" 하면서 글로바의 뒷통수를 한 대 탁! 때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속도 좋습니다. 어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도 시치미 뚝 떼고 듣고 계시는가요?

**성경이 뭐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 콧등이 같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고 부드럽게 차근차근 전체 성경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27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글은 율법서를,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모든 성경은 성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위대하며 누가 위대한 일을 하였으며...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일의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눈은 어두워도**

그래도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는 짐짓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눈은 어두워도 손님 대접하는 예의는 있네요. 예수님은 짐짓 탄척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대접이라도 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 작은 감사가 결국은 예수를 알게 해 줍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30-31)'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깨닫고는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날이 저물어 자려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즉시 밤길을 더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열한 사도와 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도 할 말이 있잖아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도 신이 나서 떠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야단맞은 얘기는 했을까요? 한참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신 이야기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즐겁게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말씀과 기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기도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말씀을 풀어주어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뜨뜻해지기는 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고 난 후에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6-7, 26-27, 44).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리워진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의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나 전도에만 열심을 내는 이상한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타 전문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든지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든지 뺑뺑이 구멍은 메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았는데 굳이 목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잘 하는 목사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 보기에 이 부분에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떤 선배가 “넌 왜 졸지 않니? 다들 졸고 있는데 너만 눈이 또록또록 한 게 몹시 밍더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저녁에는 잘 조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신앙 문제는 인생 문제든 간에 도무지 왜 흔들리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도 하는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하나님을 안 이후 한 번도 의심이나 번민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앞으로 가다가 뒤로도 간다는데 제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선 근처 산 위에서 토치카 공사를 할 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자갈을 나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자갈 하나 흘리지 않고 열심히 날랐답니다. 그때 과로해서 늑막염을 앓았고, 결국은 후송 가서 의병제대를 했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했을까요? 칭찬할 사람도 상줄 사람도 없는 데?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보았는데 몇 명 있더군요. 공통점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배웠고,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잘 배웠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저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절 보고 장가 잘 갔다고 하시는데, 잘 갔다고 말하지 않아도 잘 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데는 관심이 없어요? 대충 찍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인 줄 아세요? 잘 골라서 그런 거라면 그런 재주를 배울 생각을 하셔야지요. 제가 믿기로는 대학 다닐 때 고등학생들 잘 가르쳤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쳤거든요. 또 그럴만한 짓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의 예방약입니다.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게 만병예방약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오래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영육간에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7년째 접어들니다. 전도사, 강도사, 드디어 부목사로... 왜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더 큰 교회로 가서 경험을 쌓으라고 충고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꿈쩍을 않는 걸까요? 집이 가까워서 그럴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집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대원 가기 전에 그렇게 해둔 겁니다. 후일에, 아무래도 나는 목회에 바쁠테니 혹시 집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아야 할 상황이 되면 집사람이 쉽게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해둔 겁니다. 저 집은 언제든지 팔아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놀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도사에게 매 주 설교할 기회를 주고 은혜롭게 경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아마도 제가 가장 감사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의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성경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

들을 집사님들이 잘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몇몇 분들은 성경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요즈음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사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경 쓰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 때문에 굳이 목사가 되었으니...

눈이 가려진 술래가 어떻게 다른 아이를 잡지요? 넘어지거나 부딪힐 각오를 하고서라도 훌쩍 뛰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슬픈 인생이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이야 교회에 각종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이에?' 슬프고 외롭게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요.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도전은 우선 성경공부에 뛰어드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굳이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